



NAKS
The National Association for Korean Schools
재미한국학교협의회

2020 년 감사인사

존경하는 낙스(NAKS) 가족 여러분께,

보통 연말을 맞이하면 하는 말인
다사다난(多事多難)이 더욱더 가슴에 와 닿는 말로서
맞이하는 한 해의 끝입니다.

모든 이에게 상상하기 어렵고 이겨낼 방도조차 없어 보이는 한 해를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여러분들께서는 잘 이겨 내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여주신 지난 한 해의 수고에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리며
올해의 마지막이 여러분들의 수고에 대한 따뜻한 마음으로
더욱더 빛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연말연시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 더욱더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낙스(NAKS) 집행부 드림



NAKS
재미한국학교협의회
The National Association for Korean Schools



12 월의 낙스(NAKS) 소식

[특별기획] 개교 50 주년 기념학교 소개

이민역사와 함께 걸어온 개교 50 주년 <하와이 한인사회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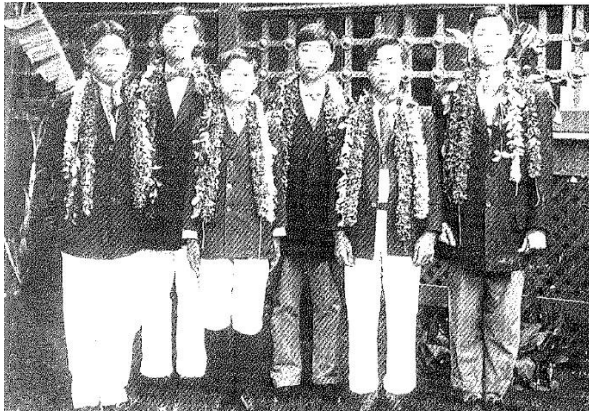
교 장 노 희 균

저희 하와이 한인사회학교(하와이 그리스도 연합감리교회 부속) 설립 50 주년을 맞이하여 축하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미주 첫 이민교회의 한국학교로서 다음 세대를 위한 한글, 문화, 전통 교육을 위하여 성도들과 목회자가 한마음으로 시작한 하와이 한인사회학교가 50 년 전통의 학교로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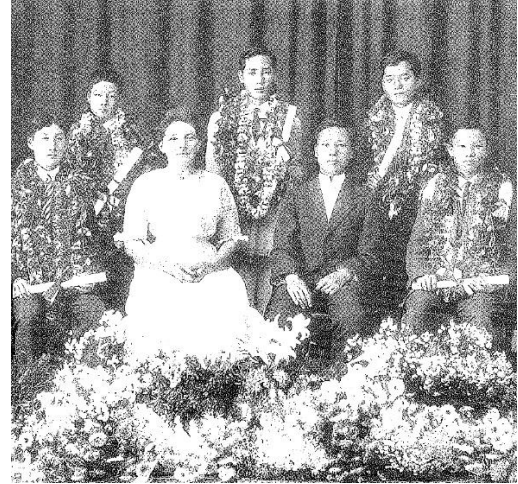
1903 년 11 월 10 일 하와이 그리스도 연합감리교회가 호놀룰루에 최초 한인 이민 교회로 시작되었습니다. 사탕수수 농장에서 노동을 하면서도 우리의 이민 선조들은 다음 세대에 신앙을 유산으로 전하고, 한국어 및 한국인으로의 정체성을 가르치고자 1906 년 8 월에 한인 청소년을 교육하는 한인 기숙학교를 하와이 감리교 선교부의 후원으로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승만 박사가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1913 년 2 월 하와이에 도착하여 한인 중앙학교(전 한인 기숙학교)의 교장직을 맡아 정규 학교로 만들어 학교 활동을 확대하였습니다. 이렇게 한인 학생들을 위한 교육이 이어져 1970 년 7 월에 박대희 목사님께서(그리스도 연합감리교회 17 대 담임목사) 지역교회로서, 커뮤니티에 융합되는 교회(Community Church)가 되기 위하여 하와이 한인사회학교를 부설하게 되었습니다.

**이민 선조들이 물려주신 소중한 전통과 교육의 유산을 지키고
앞으로의 새로운 50 년을 준비하고자...**

**"더욱 현대화된 온라인수업과 대면 수업을 통하여 지역적 한계를 벗어나
더욱더 많은 배움의 기회를 제공한다!"**



한인기숙학교(후에 한인중앙학교로 이름이 바뀜)
첫 졸업생들. 왼쪽부터 김찬제, 김계봉, 박관두,
김성현, 양유찬, 성명 미상(1912 년)



이승만 박사 교장 취임 후
한인중앙학교의 첫 졸업생들(1914 년)



한인사회학교 학생들과 이진화 선생(1998 년)



한인사회학교 학생들(1998 년)

이러한 시대의 흐름 속에서 **한국이민의 역사 속에 하와이 한인사회학교를 통하여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들에게 한국어와 문화를 가르치고, 지역 커뮤니티와 융합되는 전통을 지키며 시대의 흐름에 맞는 미래지향적인 한국어 교육**을 위하여 계속하여 노력하였습니다.

현시대에 “한국어 교육이 왜 필요한가?”라는 질문은 이민 1 세대가 받았던 “영어 교육이 왜 필요한가?”라는 질문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영어만큼 한국어의 비중이 국제사회에서 점차 높이 평가되고 세계 무대에서 한국어가 점차 중요하고 필요한 시대가 되고 있음을 대중매체를 통하여 모두가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많은 한국어를 구사하는 인재를 필요로 할 것이라 예상합니다. **글로벌 시대와 소셜 네트워킹 (Social Networking)의 흐름에 이중언어를 구사하는 인재를 더욱 필요로 하는 시대의 흐름** 가운데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한국인의 정체성 바로 한국어를 배움으로 **우리 자녀들이 한국인이라는**

정체성과 민족성을 배우고 소중한 전통을 이어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희 하와이 한인사회학교는 이민 선조들이 물려주신 소중한 전통과 교육의 유산을 지키고 앞으로의 새로운 50 년을 준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흐름에 맞추어 더욱 현대화된 온라인 수업과 대면 수업을 통하여 지역적 한계를 벗어나 한국어를 가르치고 문화를 배우며 한인 자녀들뿐만 아니라 커뮤니티에 속한 이웃의 자녀들도 함께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배울 수 있도록 더욱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하와이 한인사회학교가 하와이 지역사회에 한국어를 필요로 곳에 함께 하여 한국을 널리 알리고, 한국어를 가르쳐 다음 세대가 이민 선조들의 뿌리를 잊지 않고 계승하여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와이 한인사회학교 교사들과 학생들 모습(2019 년)



이달의 명언

희망의 빛을 향해



뉴잉글랜드협의회 회장 남 일

얼마 전 추수감사절을 기념하여 학생들에게 추수감사절 5 행시를 지어 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아래와 같은 한 학생의 글이 마음에 와닿는다. 『추수감사절은 수많은 사람들과 보내는 절기, 감사는 많이 못 했다. 사회적인 동물인 많은 사람들은 ‘절망’이라는 감정을 넘어 이제 새로운 빛으로 느끼고 있다.』

어려운 일 가운데서도 가장 어려운 난중지난(難中之難)의 2020 년의 끝자락 12 월을 보내며 고등학교 1 학년 학생의 눈으로 보고 느낀 것은 단지 ‘절망’으로 그치지 않고 절망을 넘어 희망의 빛으로 받아들이고자 한다. 나는 그 오 행시를 읽으며 “우리는 어떠한 ‘힘듦’이 닥쳐도 이와 같은 긍정적인 마인드로 고난의 터널을 지나 밝은 빛을 향해 함께 나아가면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또 닥친다 해도 우리는 능히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는 희망을 품게 된다.

금년 올해의 10 대 단어에 COVID-19 관련 단어들로 채워지게 될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겠지만, 영국의 콜린스 사전 <올해의 10 대 단어> 중에는 한글 ‘먹방(Mukbang)’도 들어가 있다는 뉴스를 보며 ‘먹방’이 주는 의미도 어려움을 이겨내고자 하는 희망의 작은 불꽃의 반향이 아닐까 하는 생각해 본다.

각자가 처한 여러 어려움 가운데에도 2 세 교육을 중단하지 않고 더욱더 최선을 다하고 있는 재미한국학교협회의 수많은 선생님들과 가족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와 ‘희망의 빛’ 네 글자를 함께 하길 바라며 내년에는 우리 함께 밝게 웃으며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토닥토닥 격려해 주며 기쁜 마음으로 만나게 되길 진심으로 소망해 봅니다.



다시 한번 감사와 ‘희망의 빛’ 네 글자를 함께 하길 바라며...
우리 함께 밝게 웃으며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만나게 되길...

알림사항

1. 제 1 회 "친구야! 대한민국을 소개할게." 프로그램 안내



미국 각 지역에 잘못 알려진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한국/한글학교 친구들에게 올바르게 소개하는

제 1 회 "친구야! 대한민국을 소개할게."

프로그램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각 지역협의회회의 많은 우수한 중,고등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격려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프로그램 일정

2021 년 1 월 23 일 (토)

저녁 7 시~ 9 시 30 분 (동부시간 기준)

*담당자 및 문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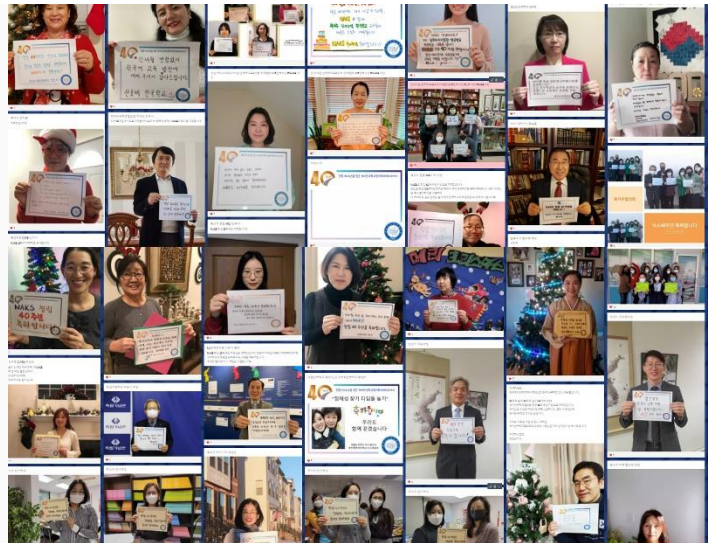
김대상 NAKS 교육간사 edu@naks.org

2. 나스(NAKS) 창립 40 주년 기념 축하메세지 릴레이 캠페인 - 패들렛(Padlet)

내년(2021)이면 창립 40 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나스를 축하하기 위해 한국과 미국 내의 각계 인사들, 교육관계자들 및 학생들이 참여하여 축하 메세지와 인증사진을 보내는 릴레이 캠페인을 진행 중입니다.

아래 링크된 주소로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다양한 축하 메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주위의 다른 분들께도 알려주시고, 함께 축하의 마음을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낙스(NAKS) 창립 40 주년 기념 캠페인 바로가기 -> <https://padlet.com/wahsyoon/23kp9z626qq5lajp>